

[TV]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류더화 "한국 사람들의 영화 사랑 부러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인 상' 수상... "홍콩 영화 부흥 앞장 서겠다"

인기 배우에서 제작자로 변신한 홍콩스타 류더화(45)가 첫 부산 나들이에 나섰다. 류더화는 지난 91년 팀워크프로덕처스(현 포커스 필름) 영화사를 설립한 이후 아시아 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PIFF)의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영화계 페락으로 불려온 류더화는 '크레이지 스톤' 감독 겸 배우로 시 그가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다. 14일 PIFF 파빌리온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부산 방문은 처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10년 넘게 홍콩영화계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 온만큼 앞으로도 신인 감독 발굴과 작품제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던 그는 홍콩영화제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그는 "홍콩에서도 국제영화제가 열리지

만 부산 국제 영화제만큼 성대하지는 않다"며 "홍콩 영화제에도 영화 관계자와 배우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 부산 영화제만큼 성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더화는 90년대 홍콩 영화의 황금기에 '지존무쌍' '열혈남아'의 영화에 출연해 여명, 장학우, 박부성과 함께 사대천황으로 불리며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을 받은 슈퍼스타다. 20년이 넘는 활동기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자신의 영화사를 설립했다"고 말할 만큼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지난 2004년에는 영화 '무간도'로 홍콩 금장상과 대만 금마장 남우 주연상을 석권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개봉을 앞둔 한중합작프로젝트 영화 '목공'에서는 안성기와 함께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 만큼 감독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웃음) 앞으로도 배우와 제작자의 길만을 걸을 겁니다. 역량 있는



신인 감독과 배우들을 발굴해 다시 홍콩 영화의 부흥기를 만들고 싶어요

류더화는 "앞으로 홍콩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도 신인 감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작자로서의 꿈을 내비쳤다.

부산=박성정기자 ksj@kwangju.co.kr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Program Name, Time, and other detail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가수 세븐(사진)이 MBC 드라마 '궁 2'를 통해 배우 신고식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제작진 관계자는 16일 "최종 계약은 아직 맺지 않았지만 세븐이 주인공으로 내정됐다"라며 "주인공 4명을 확정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세븐 '궁 2'로 연기자 데뷔

현대판 강화도령의 주인공 철가방 캐스팅...이달말께 첫 촬영

'궁' 시즌 2는 주지훈, 윤은혜 등 전편 주인공들이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세 얼굴들이 등장할지 관심을 모아 왔다. 지난해 가수 출신 배우 윤은혜를 톱스타로 만들어 화제를 모았던 '궁'은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가정 아래 펼쳐지는 색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궁 2'는 자신이 황손인 줄 모른 채 중국 음식집 배달원으로 살던 주

인공이 '궁'에 들어가 황태자로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현대판 강화도령' 이야기다. '궁 2'는 전편에 출연했던 김해차, 유윤서, 이윤지 등 황실 가족이 그대로 출연하기로 했지만, 남녀 주인공의 캐스팅이 결정되지 않아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0월 말께 첫 촬영에 들어가는 '궁 2'는 오는 2007년 1월부터 방영된다.

박성정기자 ks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igital Protection' (디지털 보청기)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hearing aid services.

케이블·위성TV 10월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for October.